

■ 광주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출범

골든타임 100일...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NEWS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정부·국회 긴밀 협의 사안·정책별 TF 대응

강기정 시장 “비상의 시간... 성과 창출 최선”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비상(非常)의 시간’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

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에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광주시청 대외협력본부에서 마련된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서울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옥 정책기획관,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박균택 국회의원, 고광만 행정부시장, 김현성 (재) 광주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非常)의 시간이다”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은 광주의 미래전략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

부와 함께 힘차게 나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책읽는 광주’,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시, 재인증 27일까지... 신규 내달 1~11일 접수

광주시는 지역서점 보호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반기 인증에는 신규 서점뿐만 아니라 인증이 만료되는 기존 인증서점 80곳에 대한 재인증도 함께 이뤄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를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는 서점,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인증기간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된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재인증 대상 서점은 오는 27일까지며, 신규 인증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이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tumbl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부 회의를 통해 7월 중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재명 정부 1년 내 광주·전남 속제 풀겠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무·행정 가교’ 자처

강위원 신임 전남도 경제부지사(사진)가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광주·전남의 오랜 속제와 난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강 부지사는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도청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도수로 써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을 잘 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년간 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TF를 구성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스타일인 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호남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지사는 자신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할 ‘정무 가교’ 역할을 맡겠다는 의

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만 대통령인 총리든 당이든,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돼 지역 행정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호남 정치 자산이 많지 않다”며, “저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지역의 오랜 과제를 공익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도 경제부지사직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밝혔다.

강 부지사는 “작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진보당에 밀린 뒤, 당시 이재명 대표가 큰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 민주당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라며 “저는 호남 민주당의 개혁 방향을 구상해 대표에게 전달했고, 그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



치가바로 경제부지사라고 판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무 감각뿐 아니라 행정 감각도 키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부지사는 “정치적 메신저에만 머물지 않고, 도정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며 공부하겠다”며 “전문 관료들이 축적해 온 정책 해법과 외부 전문가, 사회운동가들의 시각까지 함께 비교·분석해 도정에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영광 출신인 강 부지사는 그동안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중앙 정책현장을 넘나드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공공배달앱 먹개비 협력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와 손잡고 이달 8월 31일까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수수료 정책 시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서포터즈와 전남도민도 추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1+1)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 규모는 총 1081명, 1500만원 상당이다. 최대 추천인으로 등록된 1등에게는 먹개비 상품권 100만원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는 2등부터 4등까지는 각각 10만원, 2만원, 1만원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9월 12일 발표된다.

또한 신규가입자에게는 먹개비 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동북아LNG허브터미널(주)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일원
- 시 설 : LNG 저장탱크 20만㎥ 4기, 기화송출설비, 점안부두 10만 DWT 등
- 사업참여 :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활성화펀드, BS한양, GS에너지